정보

개요
곡명: Piano Concerto No. 1 in D minor, Op. 15
작곡가: Johannes Brahms (1833–1897)
장르: 독주 피아노와 관현악을 위한 협주곡
작곡 시기: 1854년 두 대의 피아노 소나타 구상에서 출발. 현행 협주곡의 큰 틀은 1856~1857년에 형성되었고 , 시험 연주와 공개 초연을 거쳐 수정되었다 .
초연: 1859년 1월 22일, Hannover 궁정극장, Johannes Brahms 독주, Joseph Joachim 지휘
범위: 세 악장으로 된 관현악 원곡 전곡

IMSLP: Piano Concerto No. 1, Op. 15

Wikipedia: Piano Concerto No. 1 (Brahms)

Johannes Brahms의 Piano Concerto No. 1 in D minor, Op. 15는 독주 피아노와 관현악을 위한 세 악장 협주곡이다 . 이 글은 Maestoso, Adagio, Rondo. Allegro non troppo로 이어지는 관현악 원곡 전곡을 다룬다 . 긴 첫 악장에서는 관현악이 먼저 재료를 충분히 제시한 뒤 피아노가 들어오며, 느린 악장과 론도 피날레가 뒤따른다. 두 대의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와 교향곡을 구상했던 흔적이 첫 악장에 남아 있고, 독주부와
관현악부는 세 악장 내내 음악의 전개를 나누어 맡는다.

세 번 바뀐 구상

1854년 봄 Brahms는 두 대의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세 악장을 Clara Schumann과 함께 연주했다. 그러나
그는 Joseph Joachim에게 두 대의 피아노조차 자신이 구상한 음악에 충분하지 않다고 편지했다. 그해 여름 첫 악장을 관현악으로 옮겨 교향곡을 생각했으며 , 1855년 2월 Clara에게는 그 교향곡이 협주곡으로 바뀌는 꿈을 꾸었다고 전했다. 꿈에서 들었다는 첫 악장과 스케르초, 긴 피날레는 당시 구상을 보여 주지만 지금의 세
악장이 이미 완성되었다는 증거는 아니다.

초기 소나타와 교향곡의 자필은 소실되었다 . 남은 편지로는 첫 악장이 관현악화되고 다른 악장도
구상되었다는 사실까지 확인할 수 있다. Albert Dietrich의 후년 회고는 초기의 느린 스케르초가 훗날 Ein deutsches Requiem 제 2악장으로 옮겨 갔다고 전한다. 지금의 아다지오와 피날레는 협주곡을 만드는 동안 새로 쓰이거나 크게 바뀌었다. Brahms가 1856년 말 피날레를, 1857년 초 아다지오를 Joachim에게 보내 의견을 구한 과정도 서신에 남아 있다. 현행 협주곡은 완성된 소나타나 교향곡을 악기만 바꾸어 연주한 판본이 아니라, 첫 악장의 재료를 중심으로 새로운 세 악장을 조직한 결과다.

Robert Schumann이 1854년 2월 자살을 시도한 뒤 Brahms는 그의 가족을 도왔다. 첫 악장의 격렬한 시작이 이 소식에 받은 충격에서 나왔다는 설명은 Joachim의 말을 Max Kalbeck이 뒤에 전한 것이다. 당시 Brahms

가 붙인 표제나 직접적인 묘사 설명은 남지 않았다. 이 위기는 작품이 태어난 시기의 중요한 사정이지만, 관현악 첫머리를 라인강의 한 장면으로 확정할 근거는 되지 않는다.

두 도시에서 갈린 첫 반응

Joachim은 1858년 3월 30일 Hannover 궁정극장에서 원고 상태의 협주곡을 시험 연주했다. Brahms가 독주했으며, 공개 초연은 이듬해 1월 22일 같은 극장에서 이루어졌다. Joachim은 바로 다음 날 Clara에게 공연이 잘 진행되었고 Brahms가 독주자이자 작곡가로 다시 무대에 불려 나왔다고 편지했다. Hannover 초연을 참패로 기억하는 통속적인 이야기는 이 편지와 맞지 않는다.

1859년 1월 27일 Leipzig Gewandhaus에서는 반응이 달랐다. Brahms의 독주에 Julius Rietz가 관현악을 지휘했으며, Brahms는 다음 날 Joachim에게 처음 두 악장 뒤에는 반응이 없었고 끝에서는 박수 시도가 야유에 막혔다고 썼다. 당시 일부 평자는 독주부의 화려한 효과가 부족하고 악곡이 지나치게 거칠다고 비판했다. Brahms는 그 뒤에도 작품을 포기하지 않고, 특히 첫 악장의 구성을 손질했다. 공연장의 기대와 작곡가의 수정 과정이 서로 맞닿은 시기였다.

출판 정보와 자료

작품의 출판은 연주용 파트와 총보가 서로 다른 시점에 이루어졌다. Winterthur의 J. Rieter-Biedermann은 독주 피아노 파트와 적어도 현악 파트를 1861년 봄에 출판했다. Brahms 자신의 한 대의 피아노 네 손 편곡은 1864년, 두 대의 피아노 편곡은 1873년에 나왔다. 관현악 총보의 초판은 Brahms-Institut가 소장한 171쪽 인쇄본의 서지에 따라 1875년으로 본다. 이 연표를 구별해야 1861년의 파트 출판을 완성 총보의 출판으로 오해하지 않는다.

Berlin Staatsbibliothek에는 Brahms의 자필 총보가 남아 있다. Morgan Library가 소장한 1858년경 총보는 필사자가 정서한 자료이며, 그 위에 Brahms와 출판사, 판각자의 수정이 겹쳐 있다. 표지의 작품번호 14가 15로 고쳐진 흔적도 보인다. 이 자료들은 초연 전후의 수정과 출판 준비를 따라가는 길을 제공하지만, 필사본을 작곡가의 자필 총보라고 부를 수는 없다.

현재 Breitkopf & Härtel의 실용 총보는 Hans Gál이 편집한 구 Brahms 전집의 전통을 잇는다. Kiel의 *Johannes Brahms Gesamtausgabe*가 준비하는 Op. 15의 새 역사비평판은 아직 작업 중이다. 자필, 수정된 필사본, 초기 파트와 뒤늦게 나온 총보가 모두 남은 작품인 만큼, 슬러와 아티큘레이션처럼 세부가 중요한 대목에서는 사용 중인 판본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소요 시간

전곡은 대략 45~50분이다. 출판사 Breitkopf & Härtel은 약 43분, IMSLP는 평균 약 48분, Los Angeles Philharmonic은 약 50분을 제시한다. 이 수치의 차이를 별도 악장을 생략한 결과로 받아들일 이유는 없다. 특히 긴 제 1악장과 느린 제 2악장의 빠르기에 따라 전곡 길이가 달라진다.

악장	악보의 빠르기	대략적인 시간
I	Maestoso	약 22~25분

악장	악보의 빠르기	대략적인 시간
II	Adagio	약 12~16분
III	Rondo. Allegro non troppo	약 11~13분

초기의 Backhaus·Boult 녹음은 전체가 약 43분이고, Schiff와 Orchestra of the Age of Enlightenment의 시대악기 녹음은 약 47분이다. 두 기록은 시간 차이가 곧 작품의 누락을 뜻하지 않으며, 같은 세 악장의 호흡도 크게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 준다.

편성

- 독주 : Pianoforte solo
- 목관악기 : Flute 2, Oboe 2, Clarinet 2, Bassoon 2
- 금관악기 : Horn 4, Trumpet 2
- 타악기 : Timpani
- 현악기 : Strings

기준 악보에는 트롬본과 튜바가 없고, 타악기도 팀파니뿐이다. 그럼에도 첫 악장은 저음 목관과 현악, 네 대의 호른, 피아노의 중·저음역을 결합해 두꺼운 관현악 소리를 만든다. 독주 피아노는 총주 위를 줄곧 돌파하는 악기가 아니라 때로 관현악의 재료를 이어받고, 때로 다른 선율을 제시한다. 악기 수보다 독주와 합주가 같은 음역에서 얼마나 겹치거나 갈라지는지가 이 협주곡의 균형을 바꾼다.

세 악장의 진행

I. Maestoso

첫 악장은 약 90마디의 관현악 제시 뒤에 피아노가 들어오는 긴 구조를 갖는다. 팀파니가 D음을 지속하는 가운데 현악의 거친 시작에는 그 조성을 곧장 확정하지 않는 화음이 놓인다. 첫 부분의 불안정성은 긴 관현악 제시가 단순한 서주로 지나가지 않도록 만든다. 피아노도 바로 같은 선율을 반복하기보다 낮은 음역에서 여린 새 생각으로 등장한다. 이후 독주와 관현악은 앞서 제시한 재료를 서로 다른 강도와 음역으로 주고받는다.

이 대목이 협주곡의 관습과 어긋나는 이유는 피아노가 늦게 들어온다는 사실만이 아니다. 첫 제시에서 이미 관현악이 여러 주제와 조성을 펼쳤고, 독주가 등장한 뒤에도 현악·관악·피아노가 긴 음악의 방향을 함께 결정한다. 호른의 선율이 피아노의 긴 독주에 응답하는 곳과 양손의 두꺼운 화음이 합주와 맞서는 곳은 독주의 역할이 달라지는 사례다. 제 1악장 끝에는 독주자가 임의로 채울 자유 카덴차가 없다. 독주 기교가 별도 전시 공간으로 모이지 않고 악장 전반의 전개에 분산되어 있다.

빠르기 표기 *Maestoso*와 6/4박자는 연주에서 큰 차이를 낳는다. András Schiff는 2021년 음반 소책자에서 자필 총보에 점 2분음표 58이라는 메트로놈 수치가 있지만 인쇄판에는 빠졌다고 지적했다. 자필의 수치와 인쇄본의 표기를 함께 검토해야 하는 대목이다. 또 다른 실연 사례는 1962년 Glenn Gould와 Leonard Bernstein의 공연이다. Gould는 첫 악장을 매우 느린 여섯 박으로 진행하려 했고, Bernstein은 두 큰 박과 여섯 작은 박 사이의 유연한 전환을 중시했다. Bernstein은 1983년 회고에서 그 이견을 청중에게 설명하기 전에 Gould의 동의를 얻었다고 밝혔다. 두 연주자의 판단 차이는 같은 6/4 기보가 제 1악장의 추진과 제 2

악장과의 시간적 비례까지 바꾼다는 점을 보여 준다.

II. Adagio

제 2악장은 D major로 옮겨 가며, 약음 현과 바순이 시작한 선율을 피아노가 이어받는다 . 첫 악장의 높은
음량과 대비되지만 독주와 관현악의 대화는 지속된다. 목관이 새 선율을 제시할 때 피아노는 그 앞뒤에서
화음을 풀어 주고, 악장 끝에는 짧은 카덴차풍 독주가 적혀 있다. 그 뒤 팀파니가 다시 등장해 다음 악장으로 향하는 종결을 만든다.

Brahms는 1856년 12월 Clara에게 새 느린 악장에서 Clara의 부드러운 초상을 그리고 있다고 편지했다. 자필 총보의 아다지오에는 *Benedictus, qui venit, in nomine Domini!*라는 미사 통상문의 구절도 적었다. 이 말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는 복되도다 ’라는 뜻이지만, 출판 악보의 악장 제목은 Adagio다. Clara에게 보낸 편지는 직접 남은 자료이며, 라틴어 문구가 누구를 가리키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Robert Schumann의 이름이나 추모와 연결한 후대의 설명도 있으므로, 이 악장을 한 사람만을 위한 초상이나 추도곡으로 고정할
수는 없다.

Schiff는 같은 소책자에서 아다지오의 친밀한 성격을 짚고, 자신의 시대악기 악단이 지휘자 없이 연주할 수 있었던 조건으로 서로의 소리를 듣고 주고받는 실내악적 태도를 들었다. 이 악장에서 약음 현악과 바순, 피아노가 선율을 이어가는 순서는 그의 선택이 무엇을 겨냥했는지 보여 준다. 제 1악장과 마찬가지로 6/4 박자를 쓰지만, 여기서는 긴 관현악 제시 대신 성부들 사이의 선율 인계가 음악의 시간을 조직한다.

III. Rondo. Allegro non troppo

마지막 악장은 피아노가 D minor의 론도 후렴을 먼저 제시한다. 관현악 도입 뒤에 독주가 조심스럽게
들어왔던 첫 악장과 순서가 반대다. 후렴이 돌아올 때마다 다른 선율과 대위적 구역이 끼어들어 반복의 내용이 변하고, 뒤쪽에는 여러 성부가 서로 모방하는 푸가토도 나타난다. 이 전개는 길었던 첫 악장과 느린 중심부 다음에 리듬의 추진을 다시 전면으로 불러온다.

피날레에는 악보에 완전히 적힌 카덴차가 두 번 나온다. 첫째 Cadenza quasi Fantasia는 D minor에서 D major로 향하는 연결에 놓이며, 둘째는 종결 직전의 짧은 독주 구역이다. 이는 연주자가 다른 카덴차를 골라 삽입하는 빈칸이 아니라 작곡된 진행의 일부다. 마지막 D major가 앞선 단조 후렴을 바꾸어 들려주면서
협주곡은 장조로 끝난다. Beethoven의 피아노 협주곡 제 3번 피날레와 비교되는 이유도 단조의 론도가 대위적 전개를 거쳐 장조 결말에 이르는 큰 배열 때문이다.

함께 만드는 시간과 음향

Lars Vogt는 2020년 인터뷰에서 이 협주곡을 피아노에서 직접 이끌 때 제 1악장의 잦은 루바토 때문에
독주자와 악단, 악장 Bradley Creswick 사이의 신뢰가 중요했다고 말했다. 두 손이 건반을 치는 동안에는
몸짓과 시선으로 시간을 맞추었다는 그의 설명은 루바토가 독주자의 마음속에서만 결정되지 않음을 보여 준다 . 앞에서 피아노가 긴 음형을 마칠 때 현악과 목관이 다음 박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에 따라 같은 프레이즈도
다른 길이를 갖는다.

András Schiff는 1859년 무렵 제작된 Blüthner 피아노를 택하고 시대악기 Orchestra of the Age of Enlightenment와 지휘자 없이 연주했다. 그는 자신의 2021년 음반 해설에서 현악기의 거트현과 다양한
비브라토 ·포르타멘토 , 목관과 금관의 독자적인 색채를 선택했다고 설명했다. BBC Music Magazine의 Bayan

Northcott는 이 녹음에서 Blüthner의 선명한 저음 덕분에 대형 현대 피아노와 악단의 조합에서는 놓치기 쉬운 관현악 세부가 드러난다고 평했다. Schiff가 제안한 연주 조건은 과거의 단 하나뿐인 소리를 복원했다는
결론보다, 악기와 편성 규모가 피아노와 관현악의 관계를 얼마나 바꾸는지 보여 주는 사례다.

녹음에서도 같은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Wilhelm Backhaus와 Adrian Boult가 BBC Symphony Orchestra 와 남긴 1932년 연주는 약 43분으로, 긴 첫 악장을 비교적 빠른 큰 흐름에 싣는다. Leon Fleisher·George Szell·Cleveland Orchestra의 1958년 녹음과 Emil Gilels·Eugen Jochum·Berliner Philharmoniker의 1972 년 녹음을 함께 평한 MusicWeb의 비평은 전자의 단단한 추진과 후자의 더 넓은 호흡 및 첫 악장 안의 빠르기 변화를 대조한다. 어느 쪽을 규범으로 세우기보다 , 악단의 밀도와 빠르기 선택이 세 악장의 비례를 바꾸는 서로 다른 기록으로 볼 수 있다.

주요 자료

Brahms-Institut Lübeck, Op. 15 작품목록. 선행 원고와 공개 초연, 독주부 ·현악 파트 ·총보의 첫
인쇄 연도.
Klaus Döge, Eulenburg 총보 서문. 초기 소나타와 교향곡 구상의 문헌, 하노버 ·라이프치히 연주의
1차 편지.
Christopher Reynolds, “A Choral Symphony by Brahms?”. 초기 악장의 계보와 아다지오 자필
문구의 해석사.
Morgan Library, 1858년경 필사 총보. 필사 자료의 성격, 출판 전 수정과 작품번호 변경.

Breitkopf & Härtel, Klavierkonzert Nr. 1 d-Moll op. 15. 통용 실용판, 악장명, 편성, 출판사가
제시하는 시간.
Johannes Brahms Gesamtausgabe, 편찬 현황. Op. 15 신비평판의 준비 상태.

Symphonieorchester des Bayerischen Rundfunks, Monika Lichtenfeld의 작품 해설. Joachim 과 Brahms의 초연 ·라이프치히 관련 편지, 초기 수용.
Purdue Convocations, 협주곡 프로그램 노트. 악장별 전개와 피날레의 두 기보 카덴차.

Leonard Bernstein, “The Truth About a Legend”. 1962년 Gould와의 공연에서 제 1악장 박자와 빠르기를 두고 나눈 이견에 관한 지휘자 회고.
Presto Music, Lars Vogt 인터뷰. 독주 겸 지휘와 제 1악장 루바토에 관한 연주자 발언.

ECM, András Schiff와 Orchestra of the Age of Enlightenment의 음반. 악기 선택, 녹음 시기, 악장별 시간과 수록 비평.
András Schiff, ECM 음반 소책자의 해설. 자필의 메트로놈 지시, 악기와 연주법의 선택, 무지휘
합주의 전제에 관한 연주자 자신의 설명.
Naxos Historical, Wilhelm Backhaus·Adrian Boult 음반. 1932년 녹음의 연주자와 악장별 시간.

MusicWeb International, Fleisher·Szell과 Gilels·Jochum 비교 비평. 서로 다른 빠르기와 관현악
호흡에 관한 평자의 비교.

Revision #1
Created 2026-10-04 10:05:26 UTC by 안준영
Updated 2026-10-04 10:05:26 UTC by 안준영